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중 관세 완화로 기술주 주도 증시 급등

- S&P 500 +1.8%, 나스닥 +2.1%, 주요 지수 모두 상승
- 애플 및 엔비디아, 관세 면제 가능성
-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지속

Summary

미국 증시는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함.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가 눈에 띄었음. S&P 500 지수는 1.81%,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56% 상승함.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조정하긴 했지만, 관세율 추가 상향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뉴욕증시의 상승세는 백악관이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한 점도 한몫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킴.

반면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50.8로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킴.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6.7%로 상승하면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을 보였지만, 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소비 심리 악화와 연관되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킴.

러셀2000 지수는 1.57% 상승하며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임. 에너지, 소재, 기술 등 모든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으며,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전체 시장 상승을 견인함.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 주요 금융사들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흐름에 기여함. 나스닥 종합지수의 강세와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 이상 급등함. (다우 +1.56%, 나스닥 +2.06%, S&P500 +1.81%, 러셀2000 +1.57%)

특징종목

애플(+4.1%)이 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완화 소식과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전략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아마존(+2.0%)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과 AI 투자 강조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주가가 상승했음. 스트래티지(+10%)는 암호화폐 관련 주식 급등 효과로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음. 뉴몬트(+7.9%)는 금 시세 최고치 기록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음. 모자이크(+6.7%)는 인산염과 칼리 수요의 건강한 상태로 주가가 올랐음. 패스널(+6.4%)은 배당 증가와 주요 고객 계약 판매 확대가 기업 성장을 견인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프리포트 맥모란(+6.4%)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5.8%)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경고로 인해 시장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하락함. 중국 관련 소식이 이 기업의 국내 제조 기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보임.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2.9%)은 전체 시장 조정과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장기적으로 이어진 주가 하락세가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애플(-3.0%)은 최근 52주 최저치 기록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어 주가에 압박이 증가함. 기관 투자자들의 목표 가격 하향 조정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임. 노르웨이저인 크루즈 라인 홀딩스(-2.2%)는 최근 주가 하락 추세와 결부된 경제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주가 하락을 야기함.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재무 결과에 대한 예상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49로 마감했음. 이는 하루 동안 10.2bp 상승한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는 0.5% 올랐음. 심화되는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채권 시장의 전통적 안전자산 이미지가 약화되고 있음. 한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는 각각 2.71과 2.58로 마감했으며, 영국은 4.77로 일일등락률이 가장 큰 12.3bp 상승을 기록함.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DXY)가 99.76으로 하루 동안 1.1% 하락했음. 유로화는 달러 대비 1.14로 1.45% 상승했으며 주간으로는 3.73% 상승함. 원/달러 환율은 1421.05로 하루 동안 2.26% 하락하여 원화가 강세를 보임. 상품 시장에서는 커피 가격이 하루 동안 4.91% 상승한 360.01로 마감했으며, 은과 금 가격도 각각 3.43%와 1.49% 상승했음. WTI 원유는 하루 동안 2.41% 상승한 61.52달러로 마감하였으며, 브렌트유는 64.73달러로 2.21% 상승함. 반면, 천연가스는 0.49% 하락하여 3.54로 마감함.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간의 무역 긴장 심화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결과임.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